

접근금지명령 집행에 대하여 알아야 할 5 가지 사항

1 접근금지 명령에서는 피해자 역시 자신이 신청한 보호명령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. 명령에 '연락(contact) 금지'가 명시되어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지만,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, 명령 집행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와 같이, 가해자가 명령을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할 경우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2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가해자는 명령에 대해서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. 이는, 가해자는 자신이 지켜야 하는 명령에 대하여 알아야만 명령에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

3 가해자가 명령을 위반할 시 생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- ◆ 가능하면, 경찰에 신고합니다. 위반의 유형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피해자가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.
- ◆ 민사상 모독죄로 판사에게 위반사실을 알립니다. 양육비 미지급과 같은 위반은 민사상으로도 처리할 수 있으며, 판사는 명령을 연장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4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두 가지 유형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.

- ◆ 민사상 모독죄
 - Ⓜ 청원자는 위반발생 가능성(증거 우월성 기준)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고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.
 - Ⓜ 대부분의 경우 판사는 가해자가 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명령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합니다.
- ◆ 법정(형사상) 모욕죄
 - Ⓜ 검사는 민사상 모독죄보다 더 높은 기준인 '합리적 의심'을 넘어 위반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.
 - Ⓜ 유죄 판결이 나면 판사는 가해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.

5 접근금지명령에는 완전한 신의와 신용이 적용됩니다. 이것은 모든 주 또는 지역에서 다른 주 또는 지역에서 내려진 명령을 집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그러나 이는 가해자에게 명령에 대한 통보와 심리의 기회가 주어진 후(가해자가 심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)에 내려진 명령에만 적용됩니다.